

민주, 투표를 높이기...바른미래, 골목 유세...평화, 전략지 집중

여야 3당 막판 총력전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8일 시작되면서 각 정당도 막판 표심을 잡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무엇보다도 북미정상회담과 월드컵 등 대형 이벤트와 지방선거가 겹쳤고, 일방적인 더불어민주당의 독주 속에서 지방선거가 치러지다보니 유권자의 무관심 속에서 각 정당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7일 "사실상 이번 주말이 선거의 분수령이 될 수 있어 추미애 대표 등 당 지도부 전원이 8일 전남의 격전지를 돌며 막바지 지원 유세를 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대표는 8일 취약지로 분류된 목포, 광양을 비롯해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을 찾아 거리 지원 유세를 한 뒤 서울로 돌아 갈 예정이다.

민주당은 특히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높아 압승을 자신하면서 '저조한 투표율 속 작은 승리'보다는 대다수 유권자의 선택 속에서 당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하겠다는 각오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차량을 이용한 거리 유세보다는 후보와 운동원이 직접 유권자를 찾아다니며 만나는 전략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 한 선거구에서 2-4명을 뽑는 기초의원

추미애 대표 전남 격전지 출동
바른미래 얼굴 알리기에 역점
보좌진까지 서남권 집중 투입
정의당 선택·집중형 지원 유세

선거의 경우, 기호 '가'번에 비해 '나' '다'번인 민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낮고 보고 이들의 당선을 위해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바른미래당도 선거 막판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의 인력이 총분하지 않은 바른미래당은 국회의원 보좌관을 모두 광주·전남 선거현장에 투입하는 등 총력전을 펴고 있다. 특히 일부 후보의 지명도가 낮다고 판단, 선거 전까지 후보자 이름 알리기에 집중하기로 했다. 주말에 예정된 TV토론회를 통해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모든 선거 운동원들은 시장과 골목을 돌며 유권자를 만날 계획이다. 또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선거 막판 이들을 집중 지원하는 전략도 펴고 있다.

바른미래당 한 관계자는 "선거 기간 동안 모든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선거현장을

돌고 있으며 선거가 마무리될 때까지 부지런히 유권자를 만나는 게 유일한 전략이다"고 설명했다.

민주평화당도 모든 당직자와 선거운동원들을 총동원해 주말과 휴일 집중 거리 유세를 한다. 평화당은 여의도에 필수 인력만을 남겨두고 모든 국회의원 보좌진 등을 광주·전남 선거현장에 투입했다. 또 지역구 국회의원별로 후보자 지원 유세를 하고 국회의원의 조지력을 총 가동해 득표를 끌어올리기에 나섰다. 특히 목포와 해남, 고흥, 강진, 진도 등을 혼전지역이 많아 주말과 휴일 이들 지역에서 집중 선거 운동을 할 계획이다.

또 7일 장병완 원내대표, 최경환 시장위원장, 천정배 의원,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출마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당 독주는 정치적 퇴보, 호남정치의 위기"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정의당도 지방의원 출마지역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형 지원 유세를 펴고, 과거 유명 집회 사회자였던 이경를 공동선대위원장이 직접 유세를 한다.

민주당에서는 청년민주당 손승 대표가 중앙 유세단과 함께 주말과 휴일 내내 선거현장을 누빌 계획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청년이 투표하면 청년정책이 바뀝니다" 광주 YMCA는 7일 오후 광주시 동구 충장로우체국앞에서 '우리 삶의 문제는 정치야! 7표하고 웃자! '청년이 투표하면 청년 정책이 바뀝니다'라는 주제로 6.13지방선거 청년 투표 참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지지층 끌어내기...여야 사전투표에 사활

지방선거 1차 분수령 판단

민주 젊은층 무관심 경계

한국 '사이 보수' 표 확보

야3당 '독주 견제' 투표 독려

사전투표일(8~9일)을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들은 자신들의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각 정당과 후보들은 사전투표가 이번 지방선거의 '1차 분수령'으로 보고 사전투표를 독려했다.

사전투표에는 일찌감치 지지 정당과 후보를 결정할 유권자들의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이같은 강력한 지지층을 사전에 붙잡겠다는 포석이다.

이 때문에 각 정당과 후보들은 자신들의 적극적인 지지층을 사전에 끌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사전투표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됐다. 당시 사전투표율 11.5%를 기록한 이후 제20대 총선 12.2%, 지난해 대선 26.1%로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특히 올해는 북미 정상회담과 균형추가 여당으로 급격히 쏠린 여론조사 결과의 영향으로 선거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면서 여야 모두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는 사전투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전통적인 지지층이 승리를 낙관, 투표하지 않는 상황을 우려하며 젊은 층을 끌어들이는 데 힘을 쏟고, 보수 야당은 '사이 보수'를 최대한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소속 의원 모두가 사전투표 첫날인 8일 투표를 하게 하고 인증 사진을 SNS에 올리거나 퍼포먼스를 하는 등 투표 독려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는 민주당의 지지층 표를 단속하고, 정부·여당에 상대적으로 호의를 가진 젊은 유권자들의 표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달성되지 않는 만큼 북미정상회담의 중전 선언은 결단코 반대라는 주장을 하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 등을 견제할 힘을

한국당에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대구·경북 지역을 빼고 대다수 지역에서 열세인 만큼, 사전투표를 적극적으로 독려해 지지층과 이른바 '사이 보수'의 표를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도 사전투표를 앞두고 열세 지역 등에서 집중 유세전을 펼치며 지지층의 사전투표를 독려했다. 야3당은 정부·여당의 독주 견제라는 명분을 강조하며 열성 지지층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

정당 관계자들은 "이번 선거는 여당에 유리한 기술이진 운동장이라고는 하지만, 광주·전남 일부지역 가운데 접전 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에서는 다른 어느 때보다 고강도 지지층을 얼마나 투표장으로 불러내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릴 것"이라며 "후보는 물론 정당마다 사전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영·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3512곳서 투표

오늘·내일 이틀간 사전투표

광주·전남 투표장 392곳

교육감만 기호 없이 이름만

6·13지방선거 사전투표가 8-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광주·전남 392곳 등 전국 3512곳의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교육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등 7개 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한 명의 유권자가 투표해야 하는 선거의 종류가 7개로, 투표소에 가면 7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하게 된다. 광주 서구와 영암·무안·신안지역 유권자는 국회의원 재선거 투표용지를 하나 더 받아 8표를 행사한다. 이 때문에 미리 투표 요령 등을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전투표는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도 투표할 수 있다. 반면, 선거일 당일 투표 때는 유권자의 주민등록지에서만 가능하다. 투표소는 각 가정에 배송된 투표안내문 또는 중앙선거



기호 없는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

위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선거정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투표하러 갈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신분증이 없으면 투표용지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도장을 챙겨갈 필요는 없다.

투표장에서는 ▲교육감선거 ▲시·도지사 선거 ▲구·시·군의장 선거 ▲시·도의원 선거(지역구·비례) ▲구·시·군의원(지역구·비례) 등 유권자 1명이 7표를 행사하게 된다. 광주 서구와 영암·무안·신안 유권자는 ▲국회의원 재선거를 추가해 총 8표를 행사한다.

투표소에서는 먼저 '본인 확인하는 곳'에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선거인명부에 서명한다.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용지 7장을 일괄 교부받아 교육감, 시·도지사, 구·시·군의장, 시·도의원,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순으로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마다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투표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 주의할 점도 많다. 투표할 때는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자신의 도장이나 손도장으로 기표하면 무효표가 된다.

또 기표소 안에서는 투표지를 활영할 수 없다. 투표 인증샷을 찍으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된다.

지난 선거 때와는 달리 '투표 인증샷'에서 엄지손가락을 내미는 '엄지작'이나 'V'자 포즈도 가능하다. 또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나 현수막 앞에서 사진을 찍어 트위터 등에 게시하는 것도 허용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2018년 무안공항 직항 출발 이제 편리하게 가까운 무안공항에서 조이투어와 함께 하세요! 쭈우우욱~

일본 기타큐슈, 오사카, 다낭, 방콕

가까운 무안에서 일본 기타큐슈 온천여행

5월 27일 이후(화(4일), 금(3일), 일(3일)) 정기편 확정

오후 출발(화, 금, 일) 무안(18:00) - 기타큐슈(19:10) / 기타큐슈(19:40) - 무안(20:50)

- 정기편 확정 기간 한정 특가(6/5-7/20) -

- ◆기타큐슈, 뱃바, 유후인 3일 [실속] 399,000원 / [폭격] 499,000원
- ◆기타큐슈, 뱃바, 유후인 4일 [실속] 559,000원 / [폭격] 599,000원
- ◆기타큐슈 아마구치 3일 [폭격] 549,000원 ※ 불포항여행: 무안공항 수송 및 기사/가이드 경비

무안 → 오사카 정기편 제주항공으로 떠나는 나만의 자유여행

[월, 목(3박4일) / 수, 금(2박3일)] • **세미패키지 실속, 무안 출발/오전출발**

- ◆오사카, 나라, 교토 OR USJ 3일(세미더블) 499,000원~
- ◆오사카, 나라, 교토 실속(세미더블) 699,000원~
- ◆오사카, 와카야마, 교토, 나라 4일 899,000원~

※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포항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안 → 마쓰모토(나가노 북알프스) 직항 전세기

오오마치 & 알펜루트 & 마쓰모토 관광

7월 28일 부터(총5회) [금, 일(2박3일) / 화(3박4일)]

- ◆ 2박3일 899,000원~ ◆ 3박4일 1,198,000원~

여름방학 가족여행 무안 → 돗토리(요나고) 직항 전세기

7월 27일 부터(총5회) [금, 일(2박3일) / 화(3박4일)]

- ◆ 2박3일 699,000원(ALL 포함) ◆ 3박4일 799,000원(ALL 포함)

무안 ↔ 북해도 전세기 [총 18항차]

7월 18, 21, 24, 25, 27, 28, 30, 31 8월 2, 3, 5, 6, 8, 9, 11, 12, 14, 17

[폭격] 준특급+특급 1,290,000원 [고폭격] 특급 1,450,000원
[골프] 특급 1,790,000원 ※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포항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안 ↔ 블라디/하바롭 전세기 [총 10항차]

7월 20, 23, 26, 29 8월 1, 4, 7, 10, 13, 16

[알뜰] 3성급 1,090,000원 [실속] 5성급+3성급 1,190,000원
[폭격] 5성급 1,350,000원 ※ 국경수기 요금은 별도 바랍니다.

※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포항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안 ↔ 세부 직항 전세기 [팬퍼시픽 연합]

6월 30일 부터(수(3박4일) / 토(4박5일))

- ◆ **세부 정통 패키지 (3박4일) 599,000원~ / (4박5일) 649,000원~**

• 팬퍼시픽항공 왕복항공권 - 유류 서비스 / 기내 담요 서비스 • 일급 / 준특급 / 특급 리프트 3박(2인실 기준), 1인실 여행보험
• 특석 2회, 리프트석 3회, 코코넛 오일(오류 드라이빙) & 코코넛 비누 1SET(포장) • 필리핀 현지 공항세(750페소/인당) 포함
• 체험다이빙 무료강습, 라푸라푸 디스커버리투어, 민속공연 관람, 맛사지
• 시내관광(마벨란의 신사, 산페드로요새 또는 막탄성당, 막탄슈리안 등)
• \$80 상당의 아일랜드 호핑투어(세부 포함) ※ 출발 날짜별 요금 및 포함사항과 불포항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합니다.

무안 ↔ 다낭 직항 전세기

5월 18일(금) 이후 [화(3박4일), 금(3박5일)] 쭈우욱~

화 출발 무안(08:05) → 다낭(10:40) / 다낭(14:40) → 무안(20:30)
금 출발 무안(21:35) → 다낭(00:10) / 다낭(01:05) → 무안(06:55)

VN 베트남 국영항공(스카이텔) 차별화된 기내 서비스
A-321-200(비즈니스 13석, 이코노미 161석)
기내식, 음료, 맥주, 기내담요, 배개, 비디오 상영

[특 가] 다낭 · 후에 · 호이안 499,000원~

[골 드] 다낭 · 후에 · 호이안 4일 699,000원~
[골 드] 다낭 · 후에 · 호이안 5일 769,000원~
[프리미엄] 다낭 · 후에 · 호이안 4일 799,000원~
[프리미엄] 다낭 · 후에 · 호이안 5일 969,000원~

※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포항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안 ↔ 방콕 · 파타야 정기편(제주항공)

5월 2일 부터(수, 목(3박5일) / 토, 일(4박6일))

- ◆ [준특급] 649,000원~ ◆ [특급] 699,000원~ (6/20(수) 출발 확정)

광주 ↔ 제주도

- ◆ 2박3일(주중) 299,000원~, 2박3일(주말) 379,000원~

※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포항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양국정부인허가조건 ※ 운항스케줄이 항공사 및 천재지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발 날짜와 인원 수에 따라 상품 가격이 다르오니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당사는 관광진흥회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기약여행 보증보험 가입 업체 등록번호: 제등다2003-1호
◆ 공통조건: 여행경비 1인 기준, 여행자보험 가입(여행상품), 1인실, 국내선항공 5인실만, 관광진흥회기금, 관광 및 부수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 / 전 지역 ◆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인실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경비 1인 일제 ◆ 예약시 계약서·취소 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경비인원, 기사/가이드 명사, 선택관광, 각종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상품에 따라 다름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대표전화: **062-234-3222**
조이투어 F A X : **062-234-3141**
JOY TOUR CO., LTD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180(금남로5가)
여행 길이 즐거운 동반자!!! http://www.joytour.kr
대표이사 최금환